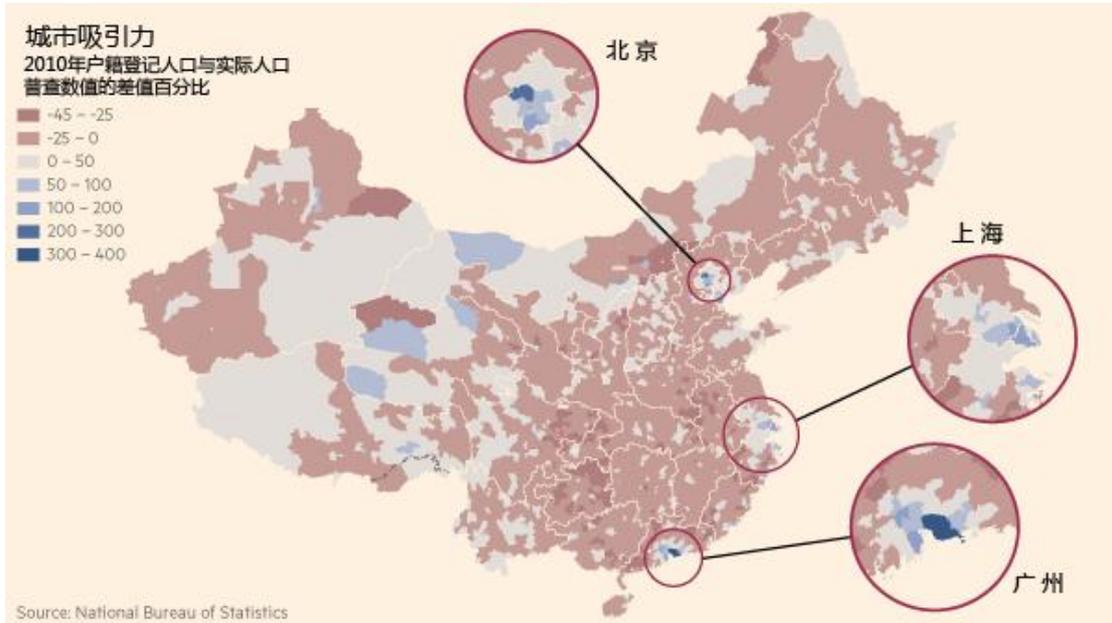


# 숫자로 본 중국 노동력 이동 동향

2015.5.14,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도시 흡인력(2010년 호적인구와 실제인구 통계 차이 백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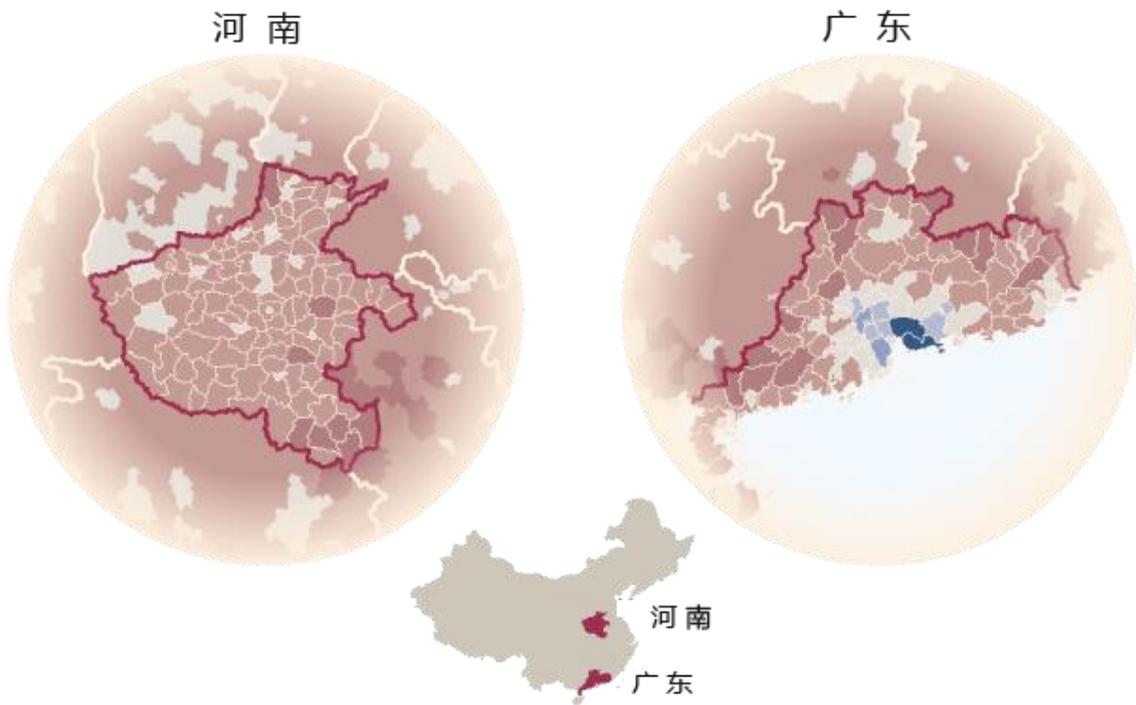
중국의 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해 온 것은 과거 30년동안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주었고, 매년 한차례씩 세계 최대의 포유동물 이동을 유발해 왔다.

위 지도는 중국의 2010년 인구조사 통계로 도출된 도시별 인구 변동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호적등기 인구 수와 인구 일제조사 결과 파악된 2010년 실제 인구 수 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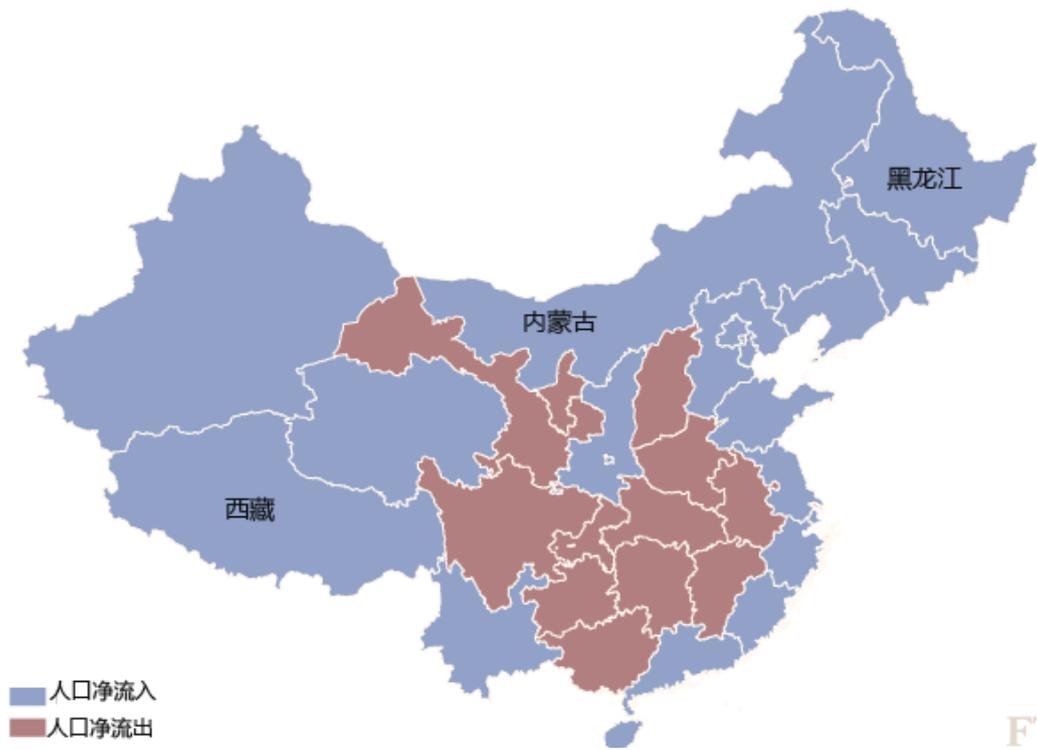
우리가 위 지도를 통해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① 상기 지도는 인구 유동이 엄청난 규모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 유출 규모가 가장 큰 하남성(1,025만 명 유출)의 경우 순유출 인구가 스웨덴의 총 인구(976만 명)보다 많았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광둥성(2,050만 명 유입)의 경우 순유입 인구가 루마니아의 총 인구(1,994만 명)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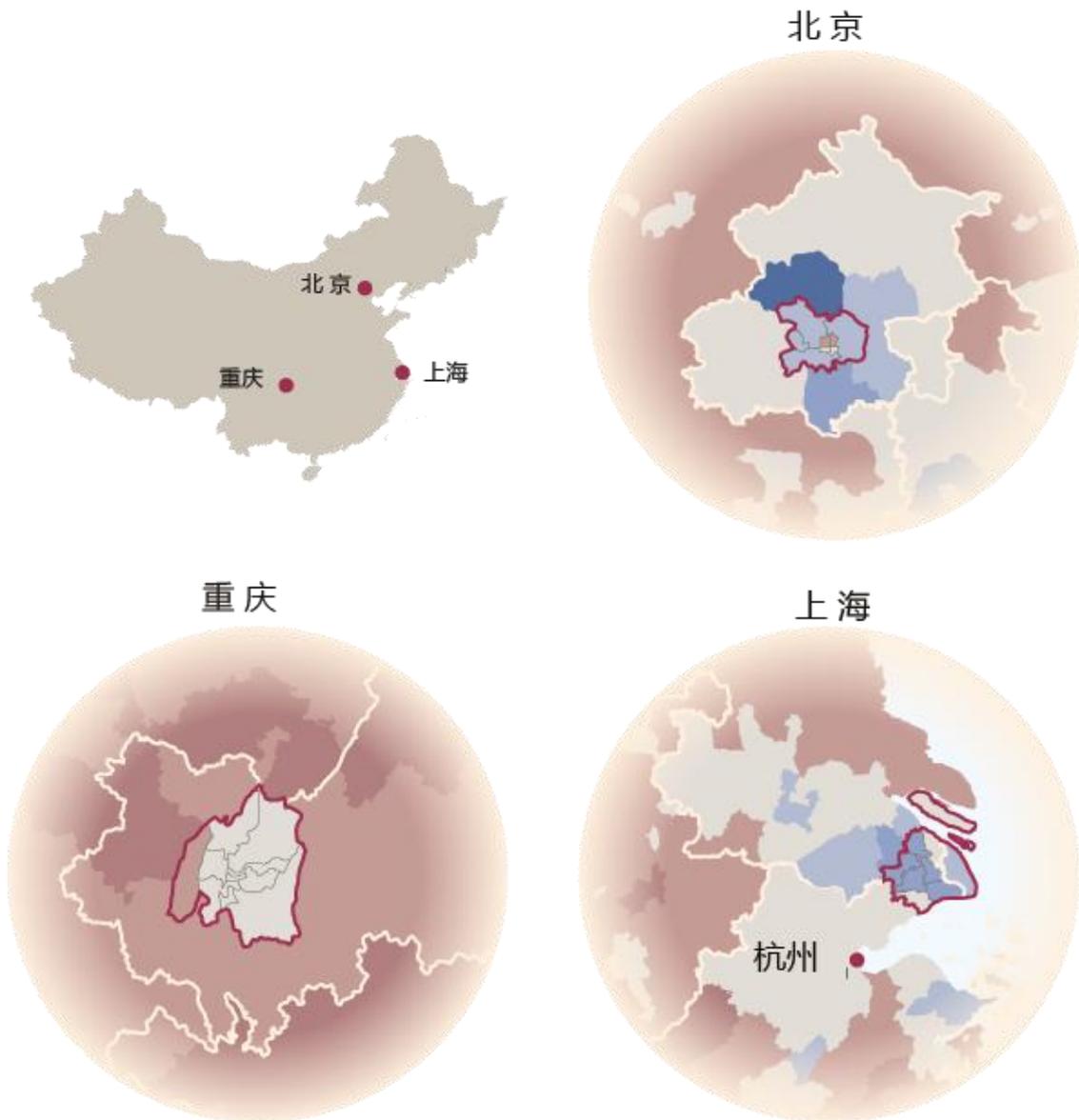


② 모든 사람들이 연해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가장 변방에 위치한 지역, 예를 들어 흑룡강, 티벳(서장), 내몽고



지역은 인구가 사실상 순유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도시들은 주변으로 확장되고 있다.



2010 년 인구조사 이전까지는 인구가 베이징, 상하이 또는 광둥성 등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지도에서는 대도시로 유입된 인구가 부근 도시나 위성도시로 분포되었다는 점이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상하이 인근의 단양(丹阳), 후저우(湖州), 항저우(杭州) 등으로 유입되었다.(항저우의 경우 상하이 시중심에서 160km 정도 떨어졌는데, 이는 대략 런던에서 브리스틀까지의 거리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형성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2010 년부터 많은 직원을 고용한 전자설비 제조업체들이 내륙지역인 충칭시(인구 2,880 만 명) 등 노동원가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팍스콘(Foxconn) 충칭 공장은 당년 5월 18일에 첫번째 노트북 컴퓨터 제품을 출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칭시 인구 순유입이 지도상에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주변 근교지역은 전부 인구 급증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상하이에서 Gabriel Wildau, Nan Ma 보충 보도